

2017 새 설계 강인규 나주시장

“지방채 ‘제로’ 실현하고 비엔나 버금갈 ‘녹색도시’ 만들 것”



“민선 6기 상반기는 나주 미래 100년의 밑그림과 디딤돌을 다졌다면, 올해는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라 꿈을 이루는 결실의 해를 만들겠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일 ‘2017년 시정운영 방향’ 제시와 함께 올해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안전제일 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및 화재, 붕괴, 폭발 등에 대비한 ‘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했다.

그는 또 “GIS 기반의 지역 맞춤형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플랫폼인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읍면동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증설해 U-City 통합 운영센터와 연계·운영하고 안전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채무 잔액을 전액 상환하는 ‘재정 자립 도시’ 구축 계획도 내놴다.

강 시장은 “민선 6기 출범 당시 333억원이었던 지방채가 139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올해 남아있는 잔액을 전액 상환하고 ‘지방채 제로

원도심과 혁신도시 조화로운 육성

시민행복 위한 안전제일도시 건설

교육·복지 투자 등 정주여건 개선

(ZERO)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 불과 3년전 554억원 이었던 자체수입이 지난해 114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도 21.5%로 대폭 상승했다”며 “나주의 미래를 위해 지방채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녹색도시 프로젝트 추진으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비엔나와 취리히에 버금갈 ‘녹색도시’를 만드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올해부터 도심녹지 공간 최소 10% 이상 조성하고,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인구 1인당 도시 숲 면적(9㎡)도 확보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나주시민헌장 조례’를 개정하고 사계절 내내 꽃이 있는 거리 조성하고 거리

마다 특성이 있는 가로수 길 조성, 도시 숲 등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일 방침이다.

강 시장은 복지와 교육 분야 투자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 시장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원도심 재생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면서 “지나해 출범한 ‘나주교육소통협의체’를 활성화시켜 교육 분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의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하게 될 ‘나주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나주-광주 고교공동 지원체와 명문고 설립 등 현안 문제는 지금까지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 체계 구축과 6차 산업 활성화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농업도시’ 건설 계획도 밝혔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준공과 로컬푸드 직매장 점진 신축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

2017년 주요 역점 사업은

-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 ▲지방채 제로(ZERO) 도시 실현
-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 ▲소비자-생산자 상생 ‘농업도시’ 건설
-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친화도시 조성

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강 시장의 생각이다.

강 시장은 원도심 ‘역사문화관광 도시’와 혁신도시의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가 공존하는 ‘스마트 시티’ 건설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내년에 추진할 ‘국보 제295호 금동관출토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영산강 유역에서 꽃핀 마한 문화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또 융성권 도시재생사업, 금성산 나눔 숲 체원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행복주택사업을 착공하고 나주읍성 4대문 복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나주=서충철기자 scy@kwangju.co.kr



나주 야외 스케이트장 인기만점

나주 야외 스케이트장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이면 방학을 맞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몰려들면서 인근 상가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진>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나주 목문화관 앞 광장에 전남지역 최초로 개장한 야외 스케이트장은 2월 20일까지 운영된다.

야외 스케이트장의 주요시설은 아이스링크 1200㎡(30mX40m)와 매패소, 대여소, 의무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7차례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 장비대여료 2000원이며,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법정 할인 대상자는 1000원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야외스케이트장 주변에는 목사내야, 금성관, 나주향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은 물론 고풍거리가 있어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부해 주차공간도 넓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남도학숙 9명·나주학사 40명 입사생 모집

나주시가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나주지역 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한 공공기숙사의 입사생을 모집한다.

서울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은 지난 1994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선발 공고에 따라 나주시 배정인원 20명 중 9명을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21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관내에 등록돼 있고, 학생이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 이상 입생이나 재학생이면 지원 가능하다. 원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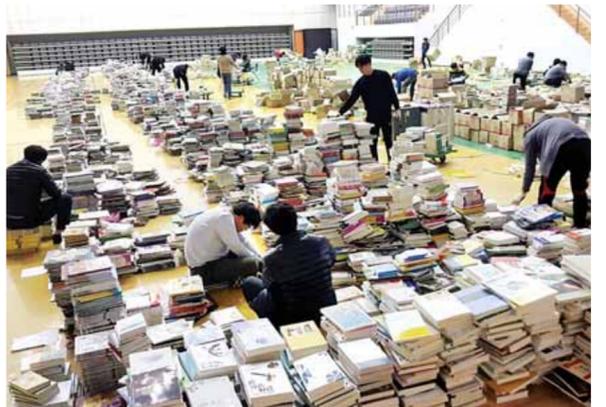
이와 함께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나주학사는 서울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전국 8개

자치단체에서 건축비를 부담해 건립한 공공기숙사로 나주시가 총 20실을 확보해 매년 2월 40명의 지역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16일 예정)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관내에 2년 이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은 공고일 현재) 등록돼 있고 학생이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 이상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저렴한 기숙사 비용으로 지역출신 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고 기숙사의 면학분위기도 뛰어나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매년 경쟁률도 치열하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 사랑의 도서 6만권 기증

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 등 34개 기관에 전달

나주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구세군에서 기증한 ‘사랑의 도서’ 6만권을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 복지시설 등 34개 기관에 배부했다. <사진> 이번 사랑의 도서 기증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해온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00개 이상의 출판사와 판매처 등에서 기증받은 도

서를 국내 복지시설과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기증된 도서는 어린이 전래동화와 동화전집, 문화, 예술, 역사 등 교양도서들이며, 나주시립도서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작은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서울 한국구세군빌딩에서 사랑의 도서를 인수해 신청처에 배부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